

梅月堂의 詩世界

閔丙秀

(人文大 國文科)

1. 序 言

1) 研究史의 反省

지금까지 梅月堂의 研究에 바쳐진 우리 學界의 研究 成果를 一瞥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方面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傳奇集 金鰲新話에 대한 小說史的 研究가 그 中心 課題로 浮刻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그 다음으로는 梅月堂集에 收錄된 雜著 및 論說을 金鰲新話와 對比 研究한 思想 論議가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崔南善에 의하여 金鰲新話의 行方이 確認 紹介된 이래, 한때 國內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던 金鰲新話가 다시 日本으로부터 우리나라에 逆輸入되었고¹⁾ 이에 따라 이후 우리 學界에서 보여준 이에 대한 關心은 金鰲新話의 小說史의 位置를 定立하는데 刮目할 만한 成果를 이룩하였다. 梅月堂에 대한 傳記的 研究를 비롯하여 金鰲新話의 形成過程을 追跡하는 文獻學的 比較研究와, 그의 作品 文脉을 檢證하는 實證의 解釋學的研究 등 初期 段階의 研究에 바쳐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綱羅되면서 金鰲新話에 대한 研究는 一時 그 盛況을 이룬 감이 없지 않았다.²⁾ 특히 作品의 外在的 要素를 重視하는 思想 研究는 一見 매우 重要한 의미를 가지는 듯하여 持續的으로 研究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쩌면 悲劇의 일 수도 있는 浪漫과 神奇로 가득찬 傳奇集 金鰲新話에 대한 文獻學的 解釋學的研究가 到達할 수 있는 限界는 처음부터豫料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作品 밖에 提示된 社會思想·哲學思想의 收拾으로 周邊 探索만을 일삼은 一部의 思想 論議들은 그것이 本格의 文學研究의 作業에까지 이르기 힘든 것은 自明하다. 더우기 虛構와 事實의 距離를 考慮하지 않은 文學思想의 研究와 같은 것은 文學理論의 不在라는 스스로의 限界를 사실로 드러

1) 崔南善, 金鰲新話解題(啓明 19호, 1927)

2) 金鰲新話에 대한 重要 研究 成果를 時代順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鄭炳昱, 金時習研究(서울大論文集, 1958)

“ , 金時習의 生涯와 思想(國文學散藁, pp 222~237, 新丘文化社, 1959)
朴晨義, 比較文學의 見地에서 본 金鰲新話와 剪燈新話(高大文理論集 3집).

鄭鉉東, 梅月堂 金時習研究(新雅社, 1961).

抽稿, 韓國小說發達史上, 韓國文化史大系 V pp 1004~1018(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李石來, 金鰲新話의 展開의 考察,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pp. 447~457(乙酉文化社, 1968).

李在秀, 韓國小說研究(宣明文化社, 1969)

林熒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國文學研究 13집).

李雲九, 梅月堂의 愛民意識과 詩의 性格(韓國漢文學研究 제1집, 1975)

낸 그 밖의 의미는 賦與될 수 없다. 虛構의 세계인 金鰲新話와, 社會的 實踐的 倫理를 강조한 論說의 文脉을 等次元에서 把握한 思想 論議가 文學論에 속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一部 成果 중에는 梅月堂의 詩作에 대한 接近을 尋圖한 것이 없지 않으나 이 또한 本格的인 作品論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고 例의 愛民意識이나 現實主義을 檢證하는데서 그치고 있어³⁾, 前記한 思想論議의 延長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梅月堂의 詩作이 提示한 문제들은 그것이 思想 研究의 資料史的 구실을 하는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梅月堂의 研究에 관한 限, 우리는 일단 傳奇集 金鰲新話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를 肯定的으로 是認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金鰲新話 바깥에 散在해 있는 雜著와 論說의 文脉을, 虛構的인 傳奇의 세계인 金鰲新話와 同一線上에서 把握하려 한 思想 論議가 결코 文學論의 할 일이 아님을 確認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도 아울러 알아야 할 것이다. 本稿의 意圖도 곧 이러한 從來의 梅月堂 研究에서 露出된 문제들을 克服하려는 한 試圖로서 梅月堂의 詩作에 대한 探索을 異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尋圖를 통하여 비로소 梅月堂의 詩篇이 그의 全人的 研究에 있어 일찌기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惠澤 받은 資料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梅月堂集 23卷 중에서 15卷이 詩集이며 여기에 수록된 詩篇만 하더라도 무려 2,200餘首에 達하고 있다. 梅月堂의 事蹟을 傳하고 있는 現存 資料들을 綜合해 보면, 梅月堂에게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詩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의 詩文集을 編成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10년을 걸려 겨우 遺篇 3卷을 收拾하였다고 하니⁵⁾, 이는 이러한 事情을 說明해 주는 端的인 證左기 될 것이다.

文以貫道나 文以載道와 같은 道學文學觀이 支配하면 당시에 있어서는, 詩라고 하는 것은 한갓 선비 사회의 教養物이거나 餘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梅月堂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이상으로 深刻하고 悲劇的인 것이었다. 그의 타고 난 詩才와, 放浪으로 始終한一生의 歷程이 서로 만나면서 이룩한 그의 詩世界는 어쩌면 그의 文學과 人生과 세계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詩를 위해 詩를 하는 浪費를 일삼으면서도 詩 말고는 디시 할 일이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詩의 意味는, 오직 詩를 하게 하는 衝擊과 詩를 하는 行爲 그것이 진부였으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考慮도 하지 않았거나와 期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逆說的으로 보면, 이는 “藝術을 위한 藝術”을 하는 行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否定的인 社會現實을 맑고 깨끗하게 反映한 藝術的 昇華現象으로 說明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梅月堂과 그의 詩世界를 一義的으로 解明하는 方法에 의거하

3) 李雲九, 上揭書

4) 李珥, 金時習傳

5) 李籽, 梅月堂集序

지 아니하고서는 梅月堂의 全人的 研究는 空疏를 免할 수 없을 것이다. 梅月堂의 研究에 바쳐진 그 많은 業績에도 불구하고 梅月堂의 真正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所以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지금까지 硬直한 정도로 傳奇 研究에만 執着해 온 從來의 研究 方向에서 빠져 나와 그의 詩世界를 檢證하는 冒險을 尋圖하게 된 것이며, 그 詩作의 詩史的 의미를 考慮하여 극히 制限된 範圍에서나마 批評的 接近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課題의 摸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梅月堂에 대한 研究가 傳奇集 金鰲新話에 集中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研究 成果로 엄어 낸 結論은 대체로 그의 儒佛思想의 導出과 같은 思想論議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金鰲新話에 대한 研究가 思想論議로歸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傳奇集 金鰲新話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를 사실로 證明한 것이며, 특히 儒佛論議와 같은 思想的研究는 이미 先人들이 指摘한 “心儒跡佛”이나 “行儒而迹佛”을 確認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思想論議에서 提示한 “現實主義思想” 即 具體的으로 “人本主義” 또는 “民本主義”와 같은 것은 儒教理念으로 武裝된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普遍的인 基本思想의 端的인 表出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또한 당시 社會의 實踐的인 儒家理念의 典型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作品 속에 그대로 露出되고 있다면 梅月堂의 作家的 評價는 이상 더 나아갈 것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梅月堂의 現實主義思想을 感傷的으로 解釋한 “主氣論”的 提示는 그 根底에서부터 檢討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⁶⁾ 主氣論이나 主理論과 같은 것은 性理學의 核心인 本體論에 속하는 것인데, 아직 性理學의 理論의 基盤이 薄弱한 당시에 있어 理氣論의 基本的인 講論도 없이 主氣論에까지 飛躍할 수 있는 氣理論의 開陳이 사실로 있었다면, 이는 우리나라 儒學史上 特記할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梅月堂集에 收錄된 論說의 性格은 아직도 實踐的인 基本儒學의 範疇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으며, 특히 20代以後 放浪으로始終한 生平의 歷程으로 보아 그가 道學 文字에 執着할 수 있는 精神의 安定 基調도 마련되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그가 性理群書를 接目한 사실은 오히려 詩集속에 나타나고 있는 데⁷⁾ 이것도 그의 晚年의 일인 것 같다.

이상에서 본 바로서, 지금까지 梅月堂에 대한 思想的研究는 그것이 梅月堂의 文學世界에接近하기 위한 周邊 探索에서 그치고 있을 뿐, 本格的인 文學論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自明하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梅月堂의 文學world에 대한 本格的인 接近의 한 試圖로서 먼저 그의 詩world를 探索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詩的 接近의 方法에 있어서도 從來의

6) 鄭炳昱, 매월당집解제, 국역매월당집 I(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및 林焚澤 前揭書

7) 梅月堂集 卷十三 ‘關東日錄’에 得性理群書를 비롯하여, 實理, 一氣, 主敬, 存心 등의 詩篇이 있으나 理氣論과 같은 本體論에까지 深化되고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思想檢證과 같은 外的 研究의 極端에서 脫皮하여, 梅月堂의 詩作에서 얻어질 수 있는 어려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重點으로 檢討하게 될 것이다. 첫째, 그가 詩를 하지 않고서는 어쩔수 없었던 詩的 衝擊을 檢證해 보는 詩的 動機와 둘째, 現實世界에서는 자기의 精神的 價值(spiritual value)를 實現할 수 없었기 때문에 詩를 통하여自己 實現(self realization)을企圖한 詩의 表現의 樣相을 追跡할 것이며, (高度한 藝術性의 문제도 여기서 追求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여기서는, 浪漫의인 傳奇의 세계를 선택하여 離情詩를 實現한 詩小說의 세계가 檢討될 것이다. 세째, 漢詩의 詩語에서 가장 常識의인 表現으로 나타날 수 있는 思惟와 感覺樣式을 살피고 네째, 극히 制限의인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古典 論論의 批評樣相을 基礎로 하여 詩鑑賞의 試驗을企圖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詩의 表現의 諸樣相

1) 詩의 動機

우리나라의 詩人中에서 梅月堂처럼 自身에 관한 모든 것을 詩를 통하여 解明한 詩人은 아마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詩의 文脉속에서 自身의 精神的 價值를 實現할 수 있었던 그는, 그로 하여금 詩를 쓰게 한 詩的 衝擊과 詩를 쓸 수밖에 없었던 詩의 動機도 모두 詩로써 읊었다. 그러므로 本稿의 作業도 그가 보여준 詩作의 現實文脉을 통하여 그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어린 時節 헛되이 功名에 기대를 걸었다가 모래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북이 신세가 된 自身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 본 梅月堂 金時習은, 詩名 같은 것 얻어보았지 소용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위하여 詩를 쓰는 浪費를 일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 功名의 꿈 부질없이 기약했다가	早歲功名浪自期
이제 와서 이름은 모래밭에 거북이라	此身端合曳沙龜
세상 인심 얇기가 매미 날개 같은데	世情薄似蜩螗翅
한가한 꿈맛은 瓊玉 같이 덜구나	閑夢甜於瓊玉飴
하늘 하늘 맑은 연기 돌길에 서려 있고	裊裊淡煙凝石逕
곱디 고운 달빛은 솔가지에 떠 있구나	娟娟寒月上松枝
詩人이란 이름 얻어 어디에 쓸 것인고	詩名老大將何用
남쪽 창 작은 벽에 詩니 찬뜩 써붙인다	題遍南窓小壁時 ⁸⁾

고 했다. 그러나 梅月堂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事情이 있었다. 일과 뜻이 서

8) 卷一, 「漫成 二首」第二(以下 卷數만 밝힐 것임)

로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지난 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의 才名도 이제는 믿을 것이 못되었던 것이다.

이 몸과 세상 일이 이토록 어긋나니 才名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오	身世相違甚 才名亦自誣 ⁹⁾
---	------------------------------

이 어처구니 없는 事實 앞에서, 그가 스스로 克服 破壞하기에는 現實은 너무도 두꺼운 障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精神的 價值를 實現할 수 있는 方便으로 選擇한 것이 詩의 世界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詩로써 實現할 수 있었기에, 그는 詩를 쓰게 된 詩的 動機도 역시 詩로써 읊었다.

마음과 세상 일이 서로 어그러지니 詩를 하지 않고서는 즐길 일이 없다오 한번 취한 기분도 순식간의 일 짐 맛도 다만 잠깐 사일세 송곳 끝을 다두는 장사치 이가 갈리고 말이나 먹일 오랑캐 한심하기만 하네 인연 없어 밝은 천거에 몸 바치지 못하니 눈물을 닦으며 아! 탄식이나 할밖에	心與事相反 除詩無以娛 醉鄉如瞬息 睡味只須臾 切齒爭錐賈 寒心牧馬胡 無因獻明薦 技淚永嗚呼 ¹⁰⁾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地上에서의 모든 것을 抛棄하고 詩로써 즐길 거리를 삼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곧 그의 詩的 動機가 된 것이다. 詩의 衝擊 때문에 詩를 쓰게 된 아이러니를 演出하게 되었으며 詩를 위하여 詩를 쓰는 浪費를 하게 된 것이다. “마음과 세상 일이 서로 어그러지니”에서 “마음”은 原初의 자기 모습이며 “세상 일”이란 梅月堂으로 하여금 窮地에까지 몰고 간 그의 不遇한 家庭 環境과 날로 醜惡해 가는 政治風土이며 “어그러진 것”은 바로 그 破綻의 宣言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超克하기 위하여 “詩를 하지 않고서는 즐길 일이 없다”고 하였다. 原初의 梅月堂이, 屈折된 自己 모습을 克服 止揚하기 위하여 詩의 世界로 飛翔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자체에 의미를 賦與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流出되는 모든 情緒가 詩로써 表現할 價值가 있는지 與否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가는 곳마다 詩를 뿐이고서도 스스로 이를 收拾하는 문제와 같은 것을 考慮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詩의 그의 世界가 함께 鴻濶한 그런 상황에서는 自己를 包含한 모든 對象을 戲畫化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것은 오히려 自然한 것일지도 모른다.

십년을 두고 泉石에서 心肝을 췄었어도 몸과 세상 일이 도무지 꿈과 같으니	十年泉石先心肝 身世都如醉夢闌
---	--------------------

9) 卷十三, 「身世」

10) 卷十四, 「敘闋」第一

단맛 쓴맛 다하지 못해 바다 밖에도 가 보았고 공연히 장난 글을 세상에 마주 뿐이네	未盡甘苦窮海外 空留戲墨滿人間
산 언덕에 숨어 살기 전생부터 소원인데 구름 끝에 신선 놀음 이 날의 기쁨이라	山阿真隱前生願 雲水仙遊此日歡
어떻게 서까래 같은 王氏 붓을 얻어서 豪氣 있게 고린 선비 놀려 볼거나	安得如椽王氏筆 一揮豪氣壓儒酸 ¹¹⁾

자신과 세상 그 어느것도 自己편이 되어 주지 않을 때, 그가 選擇한 또 다른 現實對決의 場所는 自然이었다. 이러한 事情은 그가 關西地方을 周流하고 나서 그때의 처지를 回顧한 다음 글에서도 確認된다.¹²⁾

余自少跌宕 不喜名利 不顧生業 唯以清貧守志爲懷 素欲放浪山水 遇景吟詠 . . .

소시적부터 跌宕하여 세상의 名利나 生業과 같은 것은 들보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山水로 放浪하면서 詩나 읊었다고 迹懷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跌宕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세상을 한갓 살아가는 것만으로 滿足해 하는 庸劣한 俗物들의 放蕩과는 同日에 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背信 당한 鬼才 金時習의 屈折된 모습이다. 세상을 自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과도 통하는一面이 있다. 一切의 對象에 대한 本能的 인 欲求를 포기한 狀態다. 現實의 壁이 너무 두꺼워기 때문에 그는 世俗의 名利나 生業을 내던지고 虛空으로 飛翔하거나 地下로 숨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選擇한 詩의 세계에 있어서는 現實을 凝視하는 날카로운 眸眼을 머리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現實感覺 때문에 그는 하나의 세계를 叙述하였을 뿐 새로운 세계를 探索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했다

나에게는 몇 마지기 밭이 있는데	我有數畝田
높았다 낮았다 바위 벼랑에 있네	高下依巖磽
콩 심고서 우거진 풀 매지 않았더니	種豆蕪不治
풀만 무성하고 콩 죽은 드무네	草盛豆苗稀
하늘을 우러러 노래 부르며	仰天歌鳴鳴
조용히 옛 사람 생각해 보네	靜言思古人
인생은 오로지 즐겁게 보낼 것인데	人生行樂耳
부귀가 이 몸을 괴롭게 구네	富貴勞我身
이 내 몸 또다시 생각하지 말자	我身勿復慮
잘 되고 못되는 건 하늘에 달린지라	否泰在蒼旻
세상 사람 모두들 훌뜯고 깃집으니	衆人正媿嗤
세상과 이 몸이 서로 모순 될밖에	世我相矛盾
조용히 陶淵明의 詩나 화답하다가	細和淵明詩
造成翁이 하는 대로 無로 돌아 가리라.	乘化以歸盡 ¹³⁾

11) 卷一, 「十年」

12) 卷九, 容遊關西錄後志

13) 卷二, 「草盛豆苗稀」, 陶淵明의 詩「歸園田居」에서 따온 것

밭이나 갈며 조용히 살아가려던 原初의 모습이 중간에 세상 일이 끼어 들면서 届折되고 있는 场面이다. 인생을 노래하려던 당초의 立意가 氣弱하여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詩로서 成功하지 못한 스스로의 弱點을 드러내고 있다.

좋은 詩를 쓴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쓴 詩가 훌륭한 詩이냐는 물음에 應答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疎忽히 하기 쉬운 詩語의 視覺的 聽覺的 效果와 같은 것들도 또한 만만치 않게 詩의 評價 基準으로 重視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좋은 詩의 生產을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文言으로 中國詩를 體驗한 우리나라 詩人們은 비록 中國詩의 傳統을 그대로 배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詩의 表現의 工具로서의 言語에 대해서는 疏遠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詩는 音樂的이기 보다는 概念的이다. 李籽가 梅月堂의 詩를 評하여¹⁴⁾

其爲詩浩蕩 朝夕烟雲 驅風冒雨 怒嗔喜笑 皆成句語 不規規於聲律 而典章不棄 不刺刺於詞華 而大璞
愈麗

라 하였는데, 이 말은 成句만으로는 詩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아래 聲律이나 修飾과 같은 것은 힘들이지 아니하고서도 詩作이 可能할 정도로 그의 詩才가 뛰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梅月堂의 경우, 意識적으로 그러한 것을考慮하지 않은 嫌이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 詩人們이 甘受해야만 했던 共通의 负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樂府詩나 詞曲에서 成功하지 못한 所以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韓國詩에 관한限 이러한 문제는 일단 留保하고 넘어가는 것이 叙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中國의 批評史에도, 詩에 대한 見解의 차이 때문에 여러 流派들이 있어 왔다. 道學派, 個性派, 技巧派, 直觀派 등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각각 한계가 있었다. 劉若愚는 “偉大한 詩”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¹⁵⁾

위대한 詩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經驗하게 하거나, 낡은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詩는 真實의 表現일 뿐 아니라 그것의 擴充이기도 하다 同時에 위대한 詩는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創造하기 위하여 새로운 表現, 感覺과 音律의 새로운 結合, 單語와 心象과, 象徵과 聯想의 새로운 模型 등과 아울러 言語驅使에 아직껏 보지 못한 新鮮한 方法을 반드시 걸들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는 물론 그 發想이 西歐의 文學理論에서 비롯하고 있어 이를 東洋의 古典 文學理論의 體系에서 收容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또 여기서 詳論할 성질의 것도 되지 못한다. 다만, 그 論旨로 보아 詩의 創造活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는

14) 梅月堂集序文

15) 劉若愚, 中國詩學(李章佑譯) pp 129~130.

틀림 없는 듯하다. 이에 따른다면 梅月堂의 詩는 처음부터 말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本稿에서 劉氏의 所論에 따라 梅月堂의 詩를 試驗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梅月堂이 그의 詩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의 探索을 可能하게 하였는지 與否를 檢證해 보는 정도에서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의 探索”라고 하는 것을 東洋의 古典 詩論에서 본다면, 그것은 곧 詩에 있어서 “達意”的 문제를 論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解釋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梅月堂의 詩作中에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품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立意가 이루어진 듯한 詩作들에 있어서도 대개는 그 中途에서 届折된 自己 모습을 作意 없이 露出시킴으로써 보처럼 이룩한 立意가 達意의 直前에서 破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梅月堂의 詩世界를 探索하는데 重要한 課題로 浮刻될 수 있기에 일단 의미는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梅月堂은 個性主義者들의 主張과 같이¹⁶⁾, 詩를 한갓 自己 表現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으며 특히 그에게 있어서는 詩를 쓰게 하는 衝擊이 곧 詩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쓰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詩를 쓰는 行爲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詩를 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서 流出되는 모든 情緒가 詩로서 表現할 價値가 있는지 與否도 考慮해 본 것 같지 않다. 그는 世間의 風月雲雨・山林泉石・宮室・衣食・花果・鳥獸, 人事의 是非得失, 富貴貧賤・死生疾病・喜怒哀樂, 심지어 性命理氣・陰陽幽顯에 의르기까지 有形 無形의 가리켜 말할 수 있는 것은 월조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詩概念은 오히려 비좁아서 그의 詩가 다만 情緒와 個性의 表現에 局限되고 있다는 批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感情의 流露를 自然 發生的으로 表白하기만 하였을 뿐 그 緊張이 持續되지 않았기 때문에 自身이 對答할 餘地조차 남기지 않았다.

찰라한 抒情詩나 思惟詩에 뛰어난 반면, 教事詩에 익한 것이 東洋에 있어서의 詩의 風土이고 보면, 詩로서 抒情을 노래한 梅月堂이 到達할 수 있는 創造的 世界는 어찌먼 처음부터 그 限界가 豫見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製作한 金盞新話도 이러한 詩世界的擴散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詩로써 이야기거리를 그만큼 單純化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東洋思想의 根幹을 의루고 있는 儒教와 佛教。道教의 모든 教理들은 처음부터 紛爭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不必要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들도 그의 文學世界를 規制하는데 無關하지 않았을 것이다. 梅月堂은 紛爭을 싫어했다. 그래서 흔히 抒情詩에서企圖하는 思想의 葛藤 같은 것조차도 深化시키지 못했다. 그는 너무도 쉽게 破綻을 宣言하곤 했기 때문에 그의 緊張은 새로운 세계를 넓고 깊게 探索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許筠의 論評에 따르면,

16) 同上書, p. 121 參照

金悅卿高節卓爾 不可尚已 其詩文 俱超邁 以其遊戲 不用意得之 故強弩之末 每雜蔓語張打油 可厭也¹⁷⁾

라 하여 힘들이지 않고 詩를 하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매양 난잡하고 俚俗의 말이 많다고 하였다. 正鵠을 치른 評이라 하겠다. 詩가 다른 經驗世界를 探索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갓 自己 表現에 그쳐서는 안되어 거기에 觀照가 隨伴되어야 한다. 그리고 文學的인 技巧도 아울러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許筠의 評은 바로 이런 點을 看破한 것이다. 그런데 梅月堂 자신이 그의 詩作에서 提示한 作詩 感覺은

但看其妙處(다면 그 묘한 곳만 볼 뿐)
莫問有聲聯(聲聯 같은 것 묻지를 말 것이다)¹⁸⁾

我願得其妙(내가 원하는 것은 그 妙理를 얻는 것)
不勞空喫休(그래서 힘들이지 아니하고 노래만 부르네)¹⁹⁾

와 같은 것에 端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가 詩에서 追求한 理想은 오히려 奧妙한 入神에 있었던 것 같다. 聲韻과 같은 것은 처음서부터 그를 수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그의 理想과 現實은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評이 될 것이다. 물론 그의 詩에 있어서 이러한 理想을 사실로 成功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製作한 詩의 의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詩 한 首를 아래에 각어 보기로 한다.

처사란 본래 閑雅한 것	處士本閑雅
그래서 소시부터 大道를 좋아했지	早歲好大道
그러나 세상 일은 어긋나기 시작	志與時事乖
속세에서 발자취 끊고 밀았지요	紅塵跡如掃
어서서부터 이름 난 산속에 놀면서	少小遊名山
어리석은 俗人과는 사귀지 않았지	耽俗不交好
晩年에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아	晚居瀑布傍
淸溪의 늙은이 되려 했었네	欲作淸溪老
세상 사람 어떻게 이 뜻을 알겠나	世人那得知
내개는 말하기를 신세 당쳤다 하겠지	尋常稱潦倒
處士도 또한 셈내지 아니하고	處士亦不猜
바람 불고 꽃 필 때마다 뇌체되기 일수라네	每被風化惱
매가 오면 혹시 나올지도 모르지만	隱顯或無時
仙境으로 떠나가기 기약한 몸이라오	期往蓬萊島 ²⁰⁾

17) 許筠, 許筠全集(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惺叟詩話

18) 卷四, 「學詩」

19) 卷一, 「戲甚走題」

20) 卷一, 「自贍」

모처럼 閑意를 일으켰다가는 일그러진 自己 모습을 지나치게 露出시킴으로써 長篇을 驟使할 기운은 이미 罷하고 끝내 自己 속으로沈潛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詩作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農民들의 生活相을 詩化한 社會批評的인 詩作도 여러 篇이 있다. 「唱呼歌」「咏山家苦」「記農夫語」「山畬」등이 그러한 것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長篇이어서統一的인 構成이나 繫張의 維持가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現實 感覺의 過多한 露出로 主題가 앞선 작품이 되고 있다. 妙奧를追求하던 그의 理想과도 물론 먼 거리에 있다. 完全한 景만 描寫하고 情이 없는 詩는 妙한 韻文은 될지언정 좋은 詩라고는 할 수 없다. 이 詩에 시도 그는 자신의 낡은 經驗世界를 사실로 叙述하고 있을뿐, 새로운 內面世界를 寫出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어 詩를 하게 된 그의 詩的 動機를 理解함이 없이 그의 詩에接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2) 自己 實現

實踐의인 儒教理念으로 武裝된 梅月堂의 體質에서 보면, 그는 모름지기 經術로써 明君을輔佐해야만 했고 文章으로 經國의 大業에 이바지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품을 맡긴 곳은 自然이요 謚門이었으며 그기 익힌 文章은 詩를 일삼는데 지나지 않았다. 謚門은異端이요 詩作은 한갓 餘技로만 置簿하던 당시 社會의 風土에서 보면, 그가 行한 謚門에의投跡이나 詩作에의沈潛과 같은 것은 이미 당시 社會의 典範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行跡이 怪奇하다든가 그의 詩作이 戲畫의이라는譏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읊조린 아래의 詩句는

自愧學儒術(儒術 배운것 스스로 부끄러워함은)
文章多誤身(文章이 이몸을 하도 그르쳤음이라)²¹⁾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자신의 處地를 잘 解明하고 있는 것이다. 儒家의 合理主義로 이러한 梅月堂의 處地를 가장 잘 辨明해 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人見其形骸 遠指爲輕躁 狹侮肆罵 不以爲忌 噫此其人之所以爲樂 而人方落其制內 酒更挾其得失 豈不爲大可笑哉²²⁾

사람들은 그 모양만 보고는 경망하고 조급하다고 지목하고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힘부로 욕하지마는, 그러나 오히려 梅月堂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樂으로 삼았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梅月堂의 僞裝(계획)도 모르고서 도리어 그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으운 일인가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梅月堂에게 있어서의 詩의 의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자체가 중요할 것이

21) 卷一, 「述古 十首」第一

22) 李靜, 梅月堂集序

며, 좋은 詩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은 딴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詩가 없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無詩語未能”)²³⁾ 그는 그에 관한 모든 것도 아울러 詩로써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精神的 價值(spiritual value)를 詩로써 實現할 수 있었던 보기 드문 詩人이 된 것이다. 그의 生平이나 學問, 處世, 思想은 물론이고 詩作 自體에 대해도 詩로써 말한 것이 그의 詩世界다. 이와 같이 詩를 통하여 自己 實現을 이루한 그는 그의 答답한 一生의 歷程부터 詩로써 말하고 있다.

여덟 달만에 남의 말을 알아들었고	八朔解他語
세 돌이 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었네	三朞能綴文
비와 꽃을 뛰어서 句를 얻었고	雨花吟得句
소리와 눈물을 손으로 만져 알았네	聲淚手摩分
높은 정승이 집안에 드나들었고	上相臨庭宇
여러 宗派에서 古典 書冊 선사하였네	諸宗覶典墳
이 다음 벼슬 길에 “나아갈 때엔	期余就仕日
經學으로 밝은 임금 도우려 했네	徑術佐明君 ²⁴⁾

이 詩는 梅月堂이 自述한 上柳襄陽陳情書의 内容과 一致하고 있다. 生後 8月에 글을 알았던 일이나, 3歳에 이미 글을 지을 줄 알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거나와 “雨花吟得句”는 “春雨新幕氣運開”와 “老木開花心不老”에 얹힌 作詩譚을 指稱한 것이다. 前者는 그가 세 살 되던 해에 外祖가 첫字를 “春”字로 하여 作句를 해 보라고 하였을 때 처음으로 지어보인 것이며, 後者는 政丞許稠가 집으로 찾아와 “老”字를 넣어서 글을 지어 보라고 하였을 때 作句한 것이다. 그는 또 같은 詩에서

어린 아이 宮闈에 달려 갔더니	少小趨金殿
세종께서 특별히 비단을 내리셨네	英陵賜錦袍
知申事가 불러서 무릎에 올려 놓고	、知申呼上膝
内侍는 글 써라 졸라대었다	中使勸揮毫
입을 모아 모두들 똑똑하다 이르고	競道眞英物
뛰어난 文才 났다고 서로 보려 야단이라	爭瞻出鳳毛
이제 알았으랴 집단이 기울어	君知家事替
野人으로 쑥밭에서 늙을 줄이야	零落老蓬蒿 ²⁵⁾

이 詩 역시 上柳襄陽陳情書에서 自述한 内容과도 一致하는 것이다.²⁶⁾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卷十四, 「夜吟」

24) 卷十四, 「叙悶六首」第三

25) 卷十四, 「叙悶六首」第二

26) 英廟聞而召于代言司 知申事朴以昌傳旨問虛實能否 知申事抱于膝上呼名曰 汝能作句乎 僕便應曰 來時櫟祿金時習 又指壁畫山水圖曰 汝又可作 僕即應曰 小亭舟宅何人在 如此 作文作詩不少 即入啓傳旨曰 欲親引見 恐駭人聽 宜還 授家親船晦教養 至勤 待年長學業成就 將大用 賜物還家

神童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세종이 承政院에 불러 놓고 知申事(都承旨) 朴以昌에게 시켜 그事實與否를 시험해 보게 하였는 바, 知申事が 무릎에 앉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 글 지을 줄 아느냐’ 하였더니 문득 “來時襯祿金時習”이라 대답하였고 또 벽에 걸린 山水圖를 가리키며 물었더니 “水亭舟宅何人在”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아뢰었더니 世宗은, 직접 만나 보고 싶지만世人의 耳目이 두려우니 집에 돌아가 家親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힘 쓰면 後日 學業이 成就되는 데를 기다려 크게 쓰겠다고 하시고는 下賜品까지 주셨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神童 金時習이 後日 家勢가 기울어 한갓 野人으로 시들게 된 自身의 어처구니 없는一生을 回顧한 노래다. 그는 또 같은 詩에서

13세에 어머니 잃어	失母十三歲
외할머니 데려가서 길러주셨네	提携鞠外婆
얼마 안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未幾歸窀穸
生業은 一時에 비참하게 되었지요	生業轉慘懼
높은 벼슬 같은 것 마음에 없고	簪笏縷情少
산林間에 노니는 것 좋아졌다오	雲林着意多
오로지 생각은 세상 일 잊는 것	唯事忘世事
내 멋대로 산속에 숨어 살겠소	恣意臥山阿 ²⁷⁾

라 하였는데 여기서 보여준 人間 境涯는 上柳襄陽陳情書의 다음 記錄과 合致되고 있다.²⁸⁾

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外祖母에게 가자랐는데, 外祖母는 외로운 外甥을 이들처럼 사랑하였음니다 母親喪을 당했을 때는 農莊으로 데려가 서울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守墳三年을 미치 마치기도 전에 外祖母도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아비가 된 아버지는 身羔으로 家事を 들볼 수 없어 繼母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 뒤틀어져 잘 즐움, 世宗과 文宗이 잇달아 升遐하시고 세조께서 즉위한 초년에는 옛 친구와 巨木이 모두 他界하였으며 異教인 佛敎가 크게 일어나고 斯文은 萎縮되었습니다 뜻을 둘 곳이 없어 마침내 緇流들과 어울려 山水로 노닐었습니다

15(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外家에 데려 가 쳐야만 했던 그는 거기시도 安住할 티전을 잃게 되자²⁹⁾ 原初의 時習의 모습은 이때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세상을 보는 그의 眇眼은 점차 健康을 잃어 가고 있었다. 특히 丙子之難(端宗遜位事件)으로 옛 親舊와 巨木들이 일시에 쓰러지게 되자 그는 世俗에서 몸을 거두어 緇流들과 짹하여 山水로 노닐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26세때 回顧한 岩遊關西錄後志의

一日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 則潔身亂倫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可也 欲泛汎於物外 …
一夕忽悟 若染緇 爲山人 則可以塞願 遂向松都……

27) 卷十四, 「叙問六首」第四

28) 至十五歲 慈母見背 鞠於外公婆 公婆以獨外甥 愛而育猶子焉 及丁母憂 牽于農莊 不還京都 守墳三年 未及終制 而公婆又捐世矣……(以下略)

29) 13세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은 上柳襄陽陳情書에는 15세로 되어 있어 시로 맞지 않다. 그리고 外公婆를 外叔母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李在秀氏의 韓國小說研究 등) 外公婆는 外祖父母를 가리키는 것이다

와 粟谷의 本傳에 있는

景泰年間 英陵顯陵 相繼而薨 魯山以三年遜位 於是時習 年方二十一 讀書于三角山中 人有自京城來者 時習閉戶不出者三日 乃大哭 盡焚其書 發狂 陷于溷廁而逃之 托跡緇門……

과도 相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록 禪門에 依托하기는 하였지만 佛子의 자격으로 出世하는 것이 싫어서 世祖가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³⁰⁾ 이것은 31세 되던 해 金鰲山에 山室을 卜築하고 여기서 終世하려 할 즈음 圓覺寺 落成會에 參席하라는 世祖의 부름을 받고 上京했다가, 世祖로부터 圓覺寺에 남아 있으라는 命을 받았으나 不服하고 金鰲山으로 되돌아 간 事實과도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緇流들과 어울려 山水에 몸을 맡기고서도, 그러나 佛僧의 자격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生涯의 대부분을 山寺에서 보내었지만 불교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그는 앞에서 보인 그의 述懷에서, 異教가 크게 興起하는 대신 斯文이 위축됨에 따라 그의 뜻이 荒涼해져서 緇流들과 짙하여 山水에서 노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은 스스로 불교를 異教라고 단정하면서도 異教가 興起하고 斯文이 위축된 乖亂 속에서 어떻게 禪門에 投跡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生涯의 대부분을 山寺에서 보내고서도 佛教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論理的 乖離를 어떻게 說明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냇가에서 악기 티며 즐겨 하는데	我在考槃側
고사리는 북산에서 살찌 가더라	蕨薇肥北山
무슨 일로 긴 웃 입은 저 늙은이는	何事長裾翁
한 세상에 빈 말을 그리 많이 하였나	一世多空言
스文이 쓸쓸해진 지 이미 오래고	斯文已寂寥
텅 빈 것 안 지가 몇 해이던가	曠矣知幾年
누가 천년 뒤 오늘에 있어	誰人千載下
聖學의 연원을 이을 수 있을까	似續洙泗傳 ³¹⁾

이와 같이 斯文이 荒涼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그는 이미 유유이 禪門의 境界에서 自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詩가 바로 그 모습이다.

반평생을 江海에서 사니 벗들도 많네만	半生江海友如雲
오늘 서로 만나니 道 맛이 참 같구나	今日相逢道味真
지팡이 짚고 흘로 가는데 물속에 그림자 지고	飛錫獨行潭底影
평상을 펼쳐 놓고 나무 밑에 몸을 쉬네	敷床數息樹邊身
4천권의 佛經·眞言 가슴 속에 남아 있어	四千經偈留胸臆
百二의 산과 내는 한 티끌로 변했네	百二山河轉一塵

30) 人以我爲喜釋 然不欲以異道顯世 故光廟傳旨屢召而皆不就 處身益以疎曠

31) 卷八「和淵明飲酒詩二十首」其二

氣味가 쟁쟁하나 얘기 할 빛이 없고
차 끓이는 남비 물만 가늘게 소리내네

氣味蕭然無與話
煮茶鎬水細粼粼³²⁾

스스로 山林處士를 自處한 그가 逃佛을 敢行하여 禪의 세계에 心醉한 것은 일단 그의 處世에 있어 二律背反의인 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退溪가 “索隱行怪”로 貶한 것이라든지 李籽의 “行儒而逃佛”이나 粟谷이 “心儒跡佛”이라고 한 것은 모두 이런데서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든 이에 대한 解明이 없이 梅月堂의 爲人을 理解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自身의 辩明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³³⁾

나는 본디 佛老와 같은 異端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緇流들과 짹하게 된 것은, 緇流란 원래 物外人이요 山水도 物外境이라 이 몸이 物外에 놀고 싶어서 緇流와 더불어 山水間을 노닐었읍니다.

하였다. 그러나 士君子가 세상에 處함에 있어서는, 뜻을 얻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時宜를 얻지 못하면 鄉里로 물러가 隱忍自重 때를 기다리야 하는 법이다. 이에서 보면 그는 士君子가 갖추어야 할 基本姿勢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古今君子隱顯論”에서 聖賢의 進退는 義의 當否와 時의 可不可 如何에 달렸다고 說破하고 그例로서 伊尹과 傅說 그리고 姜太公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때를 기다려 顯達한 이들이다. 隱遁해 있을 때에도 潔身亂倫에 이르지 않았으며 顯達하였을 때에도 市名沽利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梅月堂은 窮八十 姜太公이 達八十 살다 간 그러한 경지에 다까지 이르지도 못했다. 現實의 壁을 破壞하기에는 너무 英敏하였다. 그는 umpsari 敗北를 宣言하고 山水에디 몸을 맡겼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禪門에 몸을 던지고 山水로 放浪하게 된 그의 軌跡을 그 出處에서부터 追跡해 볼 필요를 느낀다.

朝鮮初期 身分秩序의 再編成 過程에 있어 地方 土豪들의 進出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梅月堂의 家系는 여기에서도 除外된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 日省이 蔭仕로 武職이라도 받은 것을 보면, 上代에서부터 閑微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으나(世系圖의 內容이 自述한 上柳襄陽陳情書의 그것과 一致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確言하기 어렵다) 이 무렵부터 家勢가 고단해지기 시작한 것은 事實인 것 같다. 서울의 伴宮옆에서 태어난 그는 그가 돌아갈 鄉里가 없었다. 이는 그의 進退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로 淳刻되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내 뱉고 잔 그 많은 詩作 속에서 歸鄉의 노래를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도 여기에서 確認할 수 있다.

破綻한 自己 모습을 克服할 모든 것을 抛棄한 그가 일단 그의 生活方便으로 선택한 것이 緇門이었으며 이것이 곧 그의 人間境涯의 向方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된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緇門에의 投跡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禪門에 耽惑케 하

32) 卷三, 「贈峻上人」二十首

33) 僕素不好佛老異端 與髡者伴 暈本物外人也 山水亦物外境也 欲身遊物外 與髡者伴 而遊於山水也(上柳自漢書)

였으며 이에 따라 儒家의 現實主義·合理主義로 佛教를 理解하고 解釋하려는 自己合理화의 변명을企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모든 意識의 消滅과 還生을 통한 報復을 要諦로 하는 佛家의 세계를 儒教의 現實主義·合理主義로 해석함으로써 現實과의妥協를企圖한 여기에서 마침내 그 思想體系의 乖離를 볼 수 있다.³⁴⁾ 地上의 障壁 앞에 쉽게 敗北를宣言하고, 屈折된 自己 모습을 스스로 克服하지 못하는 破綻한 金時習에게 있어서는, 一切의 葛藤과 紛爭을 싫어하는 釋者의 세계야말로 그만이 惠澤 받을 수 있는 歸依處가 될 수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끝내 自己合理화를 일삼은 그의 僞裝은 그러나 다음 詩句에서도 餘地 없이 揕露되고 만다.

백년 동안 글 하느라 긴 길을 쏘이겠지만	百年書劍走長途
그저 얻은 閑名만이 五湖에 가득하다	剩得閑名滿五湖
필경은 이 몸도 한바탕 꿈일 것이니	畢竟此身俱是夢
한평생 일 없기는 나 같은 이 없으리라	一生無事莫如吾 ³⁵⁾

그의 宿命論의 人生觀을 노래한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儒教의 現實主義도 佛教에 대한 現實主義的解釋도 모두 破綻에 이르고 있으며 오직 의식의 壞滅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그의 思想의 乖離는 論說과 詩의 세계가 또한 그러하다. 自然發生的으로 情緒의 表出을 極大化한 詩의 세계와, 意識으로 自己合理화를企圖한 論說文의 세계가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 모른다.

그의 好佛에 대해서도 文集이나 詩集의 到處에서 流露되고 있어 일일이 摘記할 수 없으나 李籽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⁶⁾

於釋典亦洞徹無礙 發輝精微 一日過東都 劍然大悟 曰禪理頗深 思量五載 乃得透聞 如吾道

이에 대해서는 粟谷도 梅月堂의 本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至如禪道二家 亦見大意 深究病源 而喜作禪語 發闡玄微 頗脫無滯碍 雖老釋名髡於其學者 莫敢抗其鋒
이라 하여 奧妙한 禪의 세계를 發闡함으로써 頗脫拔群하여 막히는 티가 없었던 그 禪의 경지
를 認定하고 있다. 直指人心하는 禪의 世界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인 그의 말을 들어 보면
浮屠는 治世에는 不可하지만 去懲에는 可하다고 했다.³⁷⁾ 그러나 治世에 不當한 浮屠를 現
實的으로 肯定한다는 것은 浮屠를 現實主義의으로 解釋하려는 苛且한 自己 辨明 그 이상의

34) 林煥澤教授는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繁新話」(國文學研究 第13輯 p 20)에서 이러한 그의 思想의 乖離를 타락한 불교의 改革論으로 보았고 이것은 그의 民本 愛民思想과 一致하는 것이라 하였다.

35) 卷一「縱筆四首」第二

36) 序文

37) 卷二十三「雜說」參照

것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因果論의 輪迴說이나 懈悔說을 拒否하면서도 山門의 깊은 곳에 앉아 佛經을 閱讀하던 自身의 모습은 결코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 층 香은 다 타가고 가을 밤은 깊었는데	一炷香殘秋夜深
귀뚜라미와 달빛이 禪의 마음 흐드네	蟬聲月色攬禪心
백년의 인생 살이 해아릴 수 없고	百年人事不可計
三世의 망령된 인연 찾을 곳이 없어라	三世冤緣無處尋
뜰 안에 나무는 바람 이슬 근심하고	庭樹正愁風露勁
신새는 물 안에 구름 든다 지쳐귀네	山禽似詬洞雲侵
창포 방석 종이 장막은 물보다도 더 맑은데	蒲團紙帳清於水
한가히 佛經 들고 古今을 훑어 보네	閑展禪經閱古今 ³⁸⁾

禪門의 真情을 사실로 傳해 주는 것 같다. 자신의 辨明을 더욱 困惑케 하는 現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虛構的인 傳奇의 世界에서는 또 다른 次元에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南炎浮洲志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³⁹⁾

周公과 孔子의 가르침은 正道로써 邪道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釋迦의 법은 사도로써 설문하여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주공과 공자는 正道로써 邪道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랐었고, 석가는 邪道로써 邪道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허황했읍니다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올랐었으므로 군자가 따르기 쉬웠으며, 석가의 말씀은 허황했으므로 小人이 믿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두 군자와 소인에게 마침내 바른 도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결코 세상을 疑惑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邪道로써 그릇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하여 그는 浮屠를 現實的으로 肯定・受容하기 위하여 “以邪去邪” 즉 “사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는 것”을, 儒家의 正道로서 邪道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次元에 彙着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그의 作家的力量이다. 그는 이 作品을 통하여 당시의 社會的 事實로서의 佛教와 作家가 創造한 佛教를 함께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作品 속에 提示된 事實이 社會的 慣習으로서의 典型的 事實과 전혀 共通因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갓 戲畫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반면에, 作品에서 提示된 事實이 社會的 事實의 單純敘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社會的 事實의 實錄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作品에서 提示한 佛教는 당시 사회의 典型으로서의 事實이기도 하거나와, 한편으로는, 事實과 虛構의 距離 때문에 屈折 變異된 創造的 事實이기도 하다. 佛教를 邪道로 規定한 것은, 事實과 虛構 사이에서 發見되는 共通의 現象이며, 究極의 으로 佛教의 教示의 機能을 認定한 것은 作品에서 形象化된 屈折된 事實이다. 이에서 볼 때 이 作品이 비록 神奇로 가득친 傳奇의 틀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作家意識에 대해서는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作家意識은 詩의 世界에서도 事實로 드러 낸다.

38) 卷三「夜坐看經」

39) 周孔之教 以正去邪 翟雲之法 設邪去邪 以正去邪 故其言正直 以邪去邪 故其言荒誕 正直故君子易從 荒誕故小人易信 其極致則皆使君子小人 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誤之也

불들어 잡아도 可望 없는 일	扶持無復望
聖學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聖學太荒唐
‘이슬’ ‘달’ 즐겨 쓰는 詩句도 淫薄하고	月露詞章淺
찌꺼기 같은 註釋도 길기만 하네	秕穀訓註長
나도 능히 科舉에 합격할 수 있으리니	惟能摟科第
賢良으로 廣舉할 필요도 없소	不必舉賢良
漆雕開의 품은 뜻 그 누가 알아주리	誰識漆雕意
구멍은 둉근데 차루만 공연히 모져 있구나	鑿圓空衲方 ⁴⁰⁾

天荒을 깨치는 듯한 逆說이다. 儒家의 本然의 姿勢를 스스로 抛棄하는 究境에까지 치다
르면서도 그러나 失意와 破綻과 期待와 未練 그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作家의 苦腦에
찬 모습을 읽을 수 있다.

“期余就仕日 經術佐明君”⁴¹⁾ 하겠다면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아, 39세때 오랜 放浪을 清算
하고 다시 還俗하여 安息處를 求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에게는 때가 오지 않았다.

조상 제사 못 받드는 것 언제나 恨스러워	可恨顛宗祀
본래 기 약한 뜻 저버릴까 걱정했죠	關心負素期
세상 맑아지기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河清俟望久
임금님의 부르심이 오지 않았소	鶴詔下來遲
몸과 세상 어그리침이 이렇게 심한데	身世乖違甚
세월은 멎없이 흘러만 갔소이다	年光荏苒移
하늘이 만약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天公如憫我
반드시 否塞(비색)한 운명 기울 때가 있으리라	必有否傾時 ⁴²⁾

마지막으로 걸어 본 그의 期待다. 이는 上柳襄陽陳情書의 다음 記錄을 연상케 한다.

今聖上登極 用賢從諫 痞欲筮仕 將仕祭先 屢見身世相違 如圓鑿方枘 舊知己盡 新知未償 熟知余之
素志 故復放浪形骸於山水間矣

還俗하자 어려운 生計를 이어가기 위하여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면서 安住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自安을 얻지 못한 것 같다. 結婚도 다시 하고 벼슬도 해 볼
작정이었던 모양이나 때는 끝내 그를 찾아주지 않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이내마저 죽고 말았다.⁴³⁾ 모든 것이 끝난 이때(49歳), 그는 六經子史를 신고 關東으로 遊覽의 길에 올라 농사나 짓고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還俗에서 失敗한 晚年の 失意는 倔傲하던 壯歲의 그것과는 對照의이었다.

40) 卷一「述古十首」第五

41) 前出 卷十四「叙悶」第三

42) 同上 第六

43) 李珥, 金時習傳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事事不如意
수십 속에 취했다가 다시 깨누나	愁邊醉復醒
새가 날아가듯 이 몸은 덧없고	一身如過鳥
그 많던 계획은 마음들 같네	百計似浮萍
경사를 배 속에 너무 채우지 마라	經史莫廢腹
才名은 공연히 자기 몸 괴롭힌다	才名空苦形
배개를 높이 배고 잘 생각이니 하라	唯思高枕睡
꿈에나 순임금 만나 말을 나눠 보리라	廣載夢處庭 ⁴⁴⁾

세상과 인간 그 모두를 우습게 보면 壯心의 세계는 찾아볼 수 없고 人間 金時習의 自嘆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이르러서는, 時事의인 것뿐만 아니라 家庭의인 悲劇에도 크게 傷心하였던 것 같다. 그가 세상에 내려기 살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를 自述한 이른바 五不可論⁴⁵⁾ 가운데서도 그 세가지가 妻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두가지가 糊口策에 관한 것이다.

오십이 되고시도 자식 없으니	五十已無子
남은 생애가 가련하기만 하구나	餘生真可憐
어떻게 泰運 否(비)運을 짐칠 수 있겠는가	何須占泰否
사람도 하늘도 원망하지 않겠소	不必怨人天
고운 해가 창호지에 밝게 비친다	麗日烘窓紙
깨끗한 티끌이 자리에 날리네	清塵萍坐躉
님은 해에 마릴 것 별로 없으니	殘年無可願
먹고 사는 것 일랑 편할대로 맡기려네	飲啄任君便

이에 이르러 모든 것은 끝나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헛되며 功名에 뜻을 두었더니 진흙 속에 기어다니는 거북이 꿀이 된 자기 차지를 후회하던(“早歲功名浪自期 此身端合曳沙龜”)⁴⁷⁾ 그러한 狀況도 아니었다. 功名과 學問 같은 것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으며 老衰한一身이 虛脫을 더 할 뿐이었다.

經書 이제 내던진 지	經書今棄擲
벌써 몇년 지났구나	已是數年餘
게다가 다시 바꿔의 간사한 것 텁박하다가	况復風邪逼
그 때문에 이(齒)와 머리털이 들행해졌네	因成齒髮疎
한劃이 거듭하여 둘로 보이고	奇爻重作二
“兼”子가 化해서 “魚”字로 보이네	兼字化爲魚
눈 속에 하늘을 멀리 바라보니	雪裏看天際
날오는 모기가 太空에 가득찼네	飛蚊滿太虛 ⁴⁸⁾

44) 卷十三「感懷」第二

45) 卷二十一「上柳襄陽陳情書」

46) 卷十三「自嘆」

47) 前出 卷一「漫成」第二

48) 卷十四「目羞」

人聞的인 그 모든 것이 破綻에 直面한 悲劇의 章 바로 그것이다.

後世에 와서 金時習은 이 덕분으로 마치 節義의 化身처럼 崇仰되고 到處에 그를 모시는 祀堂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는 在野에서 處士의 方式으로 살이 가는 사람들에게 稽持와 名分을 주기 위하여企圖된 政治的 作意의 一端에 지나지 않는다. 士類들이 官界에의 進出意欲을 自制케 하기 위한 最少限度의 保障策으로 마련한 것이다. 制限된 政治舞臺에서 支配層의 地位確保를 永續化하기 위해서는 不得已한 對應策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의 끝으로 그려진 金時習의 面貌도 事實과 다른 方向으로 做作되기 일쑤여서 현재까지 傳하고 있는 그의 史傳의 記錄도 信憑性이 稀薄하다. 그의 自叙行狀이나 다툼없는 上柳襄陽陳情書가 그리하고 栗谷이 치은 本傳도 그의 死去後 90年만에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리므로 本稿에서는, 自己 實現을 일삼아 온 그의 詩世界를 통하여, 그의 人間境涯와 作家의 意識世界도 함께 檢證하는 번거로움을 곁들이게 되었다.

3) 詩小說의 實現

現實속에서 굽틀거리고 있는 自身의 모든 것을 詩로써 實現한 그는, 現實에서 이룩하지 못한 理想과 꿈과 浪漫도 詩와 노래로써 實現하였다. 그것이 金鰲新話다. (南炎浮洲志만 詩가 보이지 않음)

金時習이 만약 金鰲新話を 製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영영 野說이나 傳記 등에서 奇人이나 乞僧의 모습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萬福寺櫻蒲記, 李生窺牆傳, 酔遊浮碧亭記,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 등 다섯 篇으로 된 奇集 金鰲新話を 製作함으로써 우리나라 小說史에 新紀元을樹立하였다. 이 책은 그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가 崔南善이 日本에서 逆輸入하여 1927年「啓明」19호에 全文을 收錄 解題함으로써 쉽게 읽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간에 얹힌 事情도 알게 되었다. 崔南善은 그 解題에서

綺語艷聞의 此書를 撰함이 실로 偶然함 이님을 짐작할지니라 그러나 現存하는 것만으로는 金鰲新話란 결코 卓越한 大作이 랄 것 아니며 先儒의 說과 가치 明初 崔佑의 剪燈新話を 傲한 一傳奇니, 그 體制와 措辭上에서 뿐 아니라, 立題命意와 取材設人에까지 剪燈新話を 藍本으로 하였다 할것이며, 더욱.....

이라고 하여 金鰲新話を 「綺語艷聞」인 戲作으로 보았다. 作者인 金時習은 그의 「題金鰲新話」⁴⁹⁾와 「題剪燈新話後」⁵⁰⁾에서 그의 所懷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먼저 「題金鰲新話」를 보면

陋屋에 방석 자리 오히려 따뜻하고
창가에 비친 梅影 달이 막 밝았구나

矮屋青氈暖有餘
滿窓梅影月明初

49) 卷六

50) 卷四

등불을 둑우고 단정하게 앉아서 세상에시 못보던 책 한가로이 짓는도다.	挑燈永夜焚香坐 閑著人間不見書
王堂에서 글 할 마음 없어진지 오래고 松窓에 앉았더니 밤은 정히 깊었구나	玉堂揮翰已無心 端坐松窓夜正深
구리병에 香 꽂으니 책상은 깨끗한데 風流스런 奇話を 자세히 더듬어본디	香插銅瓶烏几淨 風流奇話細搜尋

여기서 우리는 金燐新話의 創作意圖와 그 零園氣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뜻을 잃은 作者가 世俗의 人間들이 보기 어려운 기이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詩的 零園氣로 엮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燐新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는 剪燈新話의 讀後感詩인 「題剪燈新話後」에서도 明瞭하게 읽을 수 있다.

山陽의君子가 배틀과 북을 놀려 제 손으로 등불 둑위 기이한 말 써 보네	山陽君子弄機杼 手剪燈火錄奇語
文이 있고 騷가 있고 記事도 있어 遊戯와 意 살이 차례와 순서 있네	有文有騷有記事 遊戲滑稽有倫序
이름답기 꽂 같고 변화롭기 구름같아 풍류로운 이야기거리 한번에 그만이라	義如春葩變如雲 風流話柄在一舉
처음엔 허황하나 뒷맛이 감칠래라 아름다운 경지는 시탕 맛 같네	初若無憑後有味 佳境恰似甘蔗茹

가 그것이다. 風流와 이야기가 한데 어울려 甘味로운 佳境에 到達한 詩的 零園氣 바로 그 것을 말하고 있다.

金燐新話은 詩로서 엮은 怪奇譚이다. 文章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散文이지만 儻駢套가 混雜되어 있어 전체적인 문위기는 詩의이다. 스스로 「四六文章已不高」⁵¹⁾라 하고 있으면서도 儻駢套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浮華한 修辭로 一貫한 나머지 對象을 寫實的으로 描寫하지 못하고 美化하는 데서 그치고 있어 小說로서의 寫實性이 阻却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는 그 舞臺를 幻夢으로 裝置하여 이를 帳幕으로 隱蔽하였다. 이는 물론 傳奇가 恒用하는 手法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帳幕을 정착함으로써 그의 虛構的 自我를 實現할 수 있었다. 이러한 幻夢의 帳幕을 장치할 수 있는 自由가 許與되지 않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小說의 製造를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않고 鬼神의 存在를 스스로 否定한 그가 이러한 장치를企圖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重大한 冒險이 아닐 수 없다. 金燐新話를 가리켜 이른바 世俗小說로 斷定한 主張도 있는 듯하나⁵²⁾ 이것은 朝鮮後期에 대두한 世俗의 逸話의 小說과는

51) 卷八「自然吟三首」第一

52) 李懋淳, 金燐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歡小說의 類型的 考察(李崇寧先生 古稀記念國語國文學論叢 p. 57)

스스로 区別되는 限界가 明白하다.

傳奇의 세계는 非日常的 非現實의 이어서 現世의 非情한 對決이나 葛藤도 없고 다만 神奇와 優雅 그리고 甘味로운 것으로 차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는 作者 자신의 慰安物로서도 좋으려니와 讀者에게 흥미를 끌 수 있고 또 감명도 줄 수 있다.

金鯨新話는 梅月堂 金時習의 原初的 自我가, 破綻한 社會的 自我를 破壞・克服하여 모처럼 浪漫의 創造的自我를 이룩한 場面이다. 그는 現實에서의 障壁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이를 破壞・克服하기 위하여 虛空으로 飛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到達한 세계가 바로 그가 창작한 幻夢이 세계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幻夢의 배일속에서, 그에게 가장 缺乏되고 있었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고 地上에서 이룩하지 못한 그의 蘊抱를 마음껏 펼 수도 있었다.

萬福寺 榴蒲記는 사랑을 노래한 作品이다.

한 그루 배꽃나무 의로움을 달래주나	一樹梨花伴寂寥
취영청 달 밝으니 허송하기 괴롭구나	可憐孤負月明宵
구른 꿈 흘로 누운 호젓한 들판가로	青年獨臥孤窓畔
어느 집 이쁜 님이 통소를 불어주네	何處王人吹鳳簫
의로운 저 비취는 제 흘로 날아가고	翡翠孤飛不作雙
작 잃은 원양새는 맑은 물에 노니는데	鶯鶯失侶宿晴江
棋譜를 풀어보며 인연을 그리다가	誰家有約憇碁子
등불로 점치고는 창가에서 시름하네	夜卜燈花愁倚窓
(등불의 明暗으로 吉凶을 점치는 것)	

로 시작하여 全篇이 사랑의 詩로 가득차 있다. 달콤한 傳奇의 世界가 아니고는 도달할 수 없는 낭만이 珠玉 같은 詩篇으로 點綴돼 있다. 그의 詩集에서는 물론이요 어떤 詩人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 艷情詩의 세계가 여기에 펼쳐져 있다.

사랑이란 삶에 있어서 必須의이고 價值 있는 經驗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것을 超越할 수 없다는 限界 때문에 그는 일찌기 사랑을 노래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金鯨新話에서 誇示한 그의 長篇 能力은 詩의 수준에 있어서도 梅月堂集에 傳하는 다른 詩篇에 비하여 결코 貶下될 것이 아니다. 金鯨新話가 金鯨山 定着期에 쓰여진 것이라면, 비교적 安定을 되찾은 그의 生活에서 좋은 詩를 生產할 수 있는 可能性은 결코 우연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李生窺牆傳도 사랑의 詩篇이다. 李氏子와 崔家娘이 和答한 사랑의 노래는 可謂 艷情의 極致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 집 도련님고	路上誰家白面郎
-----------------------	---------

무른 것 넓은 떠가 버들 세로 비쳐오네.	青衿大帶映垂楊
이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의 새비되면	何方可化堂中燕
주렴을 시뿐 견여 담장 위를 넘어가리.	低掠珠簾斜度牆
무산 열 두 봉에 첨첩이 싸인 안개	巫山六六霧重回
반쯤 들난 봉우리는 늙고도 무르려라	半露尖峰紫翠堆
이몸의 외론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	惱却襄王孤枕夢
구름 되고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肯爲雲雨下陽臺

土君子로서는 감히 그 犯越을 꿈도 구지 못할 境界를創造한 이 浪漫의 世界는 또 다른 次元에서 새로운 評價가 있어야 할 것이다. 李生과 崔娘의 現世에서의 離別은 지극히 日常的인 것이며, 幽明間의交接도 이미 地上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限界 그것을 超克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마련한 裝置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崔娘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紅巾賊의 侵入과 같은 것도, 이러한 戰亂을 가져 온 必然의 契機가 說明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戰亂을 克服하려는 意志 같은 것도 전혀 露出되고 있지 않다. 이는 오직 幽冥의 세계로 移入하기 위하여 제조한 架橋의 구실 밖에 더하는 것이 없다.

醉遊浮碧亭記는 그의 強烈한 歷史意識篇이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에 눈물 지으며 歷史 속의 賢君을追想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는 優雅한 사랑의 노래를 잊지 않고 있다.

양대에서 뵈온 님 디만 일장춘몽인기	雲雨陽臺—夢間
가신 님 어느 헤에 통소 불고 돌아오리	何年重見玉簫還
대동강 푸른 물결 비록 무정하지마는	江波縱是無情物
님을 여원 저 곳으로 슬퍼 울며 흘리가네	嗚咽哀鳴下別灣

다만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그 어폐한 것에도 쉽게陶醉할 줄 모르는 그의 정신 세계다. 日常的인 沒頭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는 뚱뚱하게 醉한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깨어있는 醒醒한 차세를 버리지 못했다. 理想과 現實의 乖離 속에서一生을 放浪으로 일삼는 그였지만,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빠져 들어가지 못하는 意識世界의 한 단면을 읽게 해준다.

南炎浮洲志와 龍宮赴宴錄에서 그는 龍宮과 炎浮洲를 設定하였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鬼神을 否定하고 因果論의 輪廻說을 拒否한 그가, 地獄이나 다름 없는 炎浮洲와 龍宮을 設定한 것은, 一見 그 思想體系의 乖離를 드러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炎浮洲나 龍宮은 傳奇에서 빌어 온 裝置에 지나지 않는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않는 그의 信念은 南炎浮洲志에서도 事實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注目하여야 할 것은 南炎浮洲志에서 보여 준 作家 意識이다. 現實的으로는 邪道로 斷定한 佛教에 대하여 窮極의 으로 그 教示的 機能만은 認定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現實世界에서는 다하지 못한 平素의 濫抱를 이 作品을 통하여 아낌없이 開陳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龍宮赴宴錄은

비록 그것이 龍宮에서 있었던 事實로 채워져 있으나 全篇의 대부분은 사랑의 노래와 詩로
써 充滿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아 金贊新話는, 그의 사랑과 꿈과 理想을 詩로써 實現한 傳奇集으로서, 그의
詩的 表現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세계가 될 것이다.

3. 思考와 感覺樣式

文言으로 中國詩를 體驗한 우리나라 詩人們에게 있어서는 詩의 表現의 工具로서의 言語
即 中國語에 대하여 疎遠하므로 詩語 自體의 視覺的 意味論의 聽覺的 文法的인 여러 侧面
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鈍化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漢詩에서 容易하게 發見할 수 있는 것은,
詩語 가운데서 가장 常識의인 表現으로 나타날 수 있는 思惟와 感覺의 概念과 方法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 대한 理解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接近은 곧 韓國 漢詩의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 중요로
운 作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흔히 中國이나 韓國詩에서 主題의 素材가
되어온 自然, 閑, 時間, 歷史, 鄕愁, 술에의 陶醉, 사랑 등이 梅月堂의 思惟와 感覺樣式
을 통하여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지를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自然

몸을 山水에 내던지고一生을 그 속에서 노닐다가 긴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自然是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文字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自身이 그의 一部가 되곤 했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좋아한 그는 淵明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自然에 깊은 의미를 賦與했다. 現實에 대한 失意가 크면 클 수록 相對的으로
自然의 不變하는 永續性 때문에 특별한 深刻性을 부여하고 悲劇的인感情을 깃들게 했다.
다음 詩에서 그리한 梅月堂의 感覺樣式의 一端을 읽을 수 있다.

바위에 의지하여 작은 집을 세웠는데	倚岩架小廬
겨우 내 할 몸 용람할 수 있겠네	僅得容我軀
떨어지는 잎으로 담요를 삼고	落葉以爲氈
삭정이로 햇대를 만들어 보았네	枯柗以爲櫛
지붕은 소나무와 전나무로 하니	葺之兮松檜
방은 작지만 마음은 즐겁네	室小心愉愜
구름과 노을은 휘장이 되고	雲霞爲帳幙
푸른 산은 스스로 병풍이 되었다네	碧山爲屏風
잔나비와 새들은 짜이 되어서	猿鳥爲伴侶
나의 마음 같은 것 얻었다 하네	得我心所同
나는 방랑하는 나그네	我是放浪人
구름 물 속에서도 오히려 면안하네	夷猶雲水中

물진의 싱결에도 길들여져서	物性亦驯擾
마시고 먹는 것 마른 풀에 의지했네	飲啄依枯叢
원컨대 날 추운 뒤 맹세를 맺어	願結歲寒盟
즐거운 일 디함이 없게 하거나	行樂無終窮 ⁵³⁾

이때에 있어서의 自然은, 멀리서 바라보는 認識의 對象이 아니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生活의 一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나그네 金時習에게는 “스스로 그령에 있는 것” 이상으로 비극적인 감정을 짓들게 한다. 現實을 拒否하는 儀兀한 批評精神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自然은 또 다른 하나의 現實 對決이 이루어질 수 있는 場所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다음의 詩作은

나그네 清平寺에 찾아 왔으니	有客清平寺
봄 신에 올라 마음대로 돌아 보세	春山任意遊
새가 우는데도 외로운 탑은 고요하고	鳥啼孤塔靜
꽃이 지도 작은 시내는 흘러만 가네	花落小溪流
맛난 나물 철을 알아 더 한층 배어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벼섯은 비 지나가니 더욱 부드럽네	香齒過雨柔
詩를 읊조리며 仙洞으로 들어가니	行吟入仙洞
백년 묵은 내 시름 살아지누나	消我百年愁 ⁵⁴⁾

閑適을 自任한 秀作이다. 모처럼 物我가 한데 어울려 無我의 地境에 이르고 있다. 그가 試에 시 追求하던 奥妙한 세계에 이르고 있는 느낌이다.

2) 時 間

來世를 否定하는 儒家의 現實에서는, 時間은 더욱 切迫하고 哀切한 것이 아닐 수 없다. 梅月堂의 경우에 시와 같이 現實에서 安住할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現實의 有限性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 된다. 짧은 시절의 倔傲하던 意氣가 晚年の 失意로 急轉할 때, 찾아주지 않은 歲月은 憂絕을 더해 출 뿐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다림에 지친 自嘆이 있기 마련이다. 다음 詩에 그 現場을 보기로 한다.

세상 일 하도 많이 변해 가는데	世故屬多變
축축하게 내 마음 상하기만 하네	惻惻傷我心
아침에는 이리와 범의 집에 겹내고	朝畏豺虎闕
저녁에는 가시나무 덤불 피한다	暮避荊棘林
성큼 성큼 하루 해가 난아가는데	冉冉白日飛
당당하게 歲月은 늙어만 가네	鼎鼎光陰老
대장부 세상에 살아가면서	丈夫在世間
어찌하여 품은 생각 퍼지 못하나	胡不展懷抱

53) 卷三「葺松檜以爲廬」

54) 卷十三「有客」

인생은 정녕 맷돌 같기 같으니	人生如磨礪
다 가는 것 반드시 그 시기 있으리	磨盡自有時
모름지기 몸가짐 삼가야 할 것	直須慎行藏
뜻이 크면 반드시 펼 기회 있으리라	志大終有期
하늘이 만약 큰 소리 못치게 하면	天如使不鳴
말이나 쳐어서 뒷세상에 알려라	立言要後知 ⁵⁵⁾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몇 없이 흘러 보내는 안타까움으로 차 있다. 그러나 여기선 後日을 기다리는 壯歲의 雄志는 버리지 않고 있지만, 다음 詞에 보이는 晚年的 失意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自嘆으로 얼룩져 있다.

주론 산 떠로 이은 초막 속에서	青山茅屋裏
백발이 근심과 함께 허누나	白髮與愁并
사립을 만나도 말을 못하고	對人常不語
눈물을 닦으며 못인를 것 턴식하네	拭淚歎無成
큰 뜻은 해마다 줄어만 들고	壯志年年減
늙은 나이 나날이 기울기만 하네	頽齡日日傾
묻노라 내가 아는 몇 사람 중에	問今知幾輩
니 같이 功名이 쳐온 사람 있던가	似我少功名 ⁵⁶⁾

3) 歷 史

梅月堂에게 있어서 歷史는 強力한 認識의 對象이었다. 往古의 興亡盛衰에 눈물 짓고 歷史 속의 賢君을 追想了다. 太祖와 世宗에게 걸었던 期待가 깨어짐을 출퇴하고 當今의 세상을 한탄했다. 이럴 때 거기에는 懷古詩가 남기 마련이다. 個人的 生命에서 느꼈던 것보다도 歷史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地上에서의 모든 것을 抛棄한 그였지만 歷史에 無關心할 수 없는 知識人の 자세는 버리지 않은 것이다.

비 바람 소슬하게 뉘시더를 치는데	風雨蕭蕭拂釣磯
渭川의 고기 새 세상 일 폐 잊었더니	渭川魚鳥識忘機
어찌다가 늘그막에 난다진다 장수되어	如何老作風雲將
끌내는 伯夷·叔齊 끓어 죽게 했단 말가.	終使夷齊餓采薇 ⁵⁷⁾

(‘風雲’은 ‘鷺揚’으로 쓰기도 함)

옛날 그와 親舊였던 徐亘正이, 찾아온 時習에게 그림 한폭을 내 보이면서 詩 한首를 付託한 것이다. 그림은 姜太公이 벼슬하기 前에 渭川에서 뉘시질하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이다. 벼슬깨나 하여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徐亘正에게는 都是 맞지도 않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는 이같이 씌 갈긴 것이다. 往古의 賢人을 追想了하고 當今의 세상을 嘲笑한 것은 물론이니.

55) 卷一「世故」

56) 卷十四「夜吟」

57) 卷二「嘲二釣叟」

그리나 그는 變轉하는 現實에 대한 關心보다도 歷史 속의 興亡 盛衰에 더 많이 눈물 짓고 있다. 다음 詩에서 보기로 한다.

눈 오는 밤에 등불 돋우고 역사책을 읽다가	雪夜挑燈讀史書
책 덮고 탄식하니 눈물이 흐르누나	掩編長歎涕漣洳
興亡은 有數한데 사람은 어디갔나	興亡有數人何去
治亂도 종적 없고 나는 새 간 곳 없네	治亂無蹤鳥沒虛
靚(난)과 豁이 포로된 것 분하지 아니하고	不念靚豁居就虜
操政이 편히 산 것 그대로 미워라	生憎操政耐安居
종이 조각 斧鉞이 해와 같이 분명하니	紙片斧鉞明如日
죽었으되 산 것 같아 그 냄새 남아 있네	雖死猶生臭有餘 ⁵⁸⁾
(靚은 周나라 최후의 王, 豁은 秦始皇의 손자, 項羽에게 죽음 操政은 曹操의 秦政)	

4) 閑

一生을 두고 별 일 없이 살다간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閑 그것은 生活의 全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詩에서 보여준 詩的 感覺은, 現實의 關心과 欲望으로부터 마음을 自由롭게 가지고 그 자신과 자연이 함께 平和스러운 狀態에 놓여지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閑意가 일어났다가도 世事나 다른 事物이 끼어 들어 분위기를 혼들어 놓곤 했다. 애써 身과 世에 無關心하려 한 梅月堂은 모든 것에 대한 一切의 執念에서 超脫하여 그야말로 泰然하고 별 일 없고 생각에만 잠길 수 있는 마음의 狀態에 놓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는 그의 一身과 마찬가지로 平和스러운 狀態에 安住할 수 없는 精神世界의 徘徊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閑意”, “閑極”, “閑適”, “偶成”, “漫成”, “謾成” 등 그의 詩作에서 보여준 그 많은 “閑”에도 불구하고 그는 完全한 閑逸 속에서 自適하지 못했다.

낙엽 쓰는 소리에 낮 꿈을 놀리 깨어	掃葉聲中午夢驚
일어나 동쪽 산에 훤 구름 보네	起看東嶺白雲生
고기 새 저것들 마음도 취미도 없는 것이	直將魚鳥無心趣
세상 情 아닌 것 烟霞를 얻었네	剩得烟霞不世情
주렴 밖 국화 향기에 사람 情도 고요하고	簾外菊香人正靜
뜰 앞에 이끼 보니 비가 처음 개인때라	庭前苔潤而初晴
까닭없이 슬픈 가을 興趣만 둘워 놓아	無端起我悲秋興
離騷經 암만 읽어도 마음 평안 못하여라	細讀離騷心未平 ⁵⁹⁾

이 詩는 閑適을 노래한 詩篇中의 하나다. 모처럼 일어난 閑意를 얻어 物我를 超克한 觀照의 세계로 没入하는 듯했으나 가리를 수 없는 공연한 情感의 橫出로 그는 끝내 心的인 自安을 얻지 못하고 있다.

58) 卷一「看史傷心」

59) 卷二「掃葉」

꽃은 山中의 痴魄이요	、	花是山中曆
바람은 고요한 때의 손님이다		風爲靜裏賓
술 살 돈 없는 것이 恨스럽기도 하지만		恨無沽酒債
담 님엔 청해 을 이웃도 없네		又欠過牆隣
대나무 언덕에선 찬바람 불어 오고		竹鳴涼吹急
소나무 창에는 달빛도 새롭구나		松窓月色新
활일없이 노래 불러 도리어 破寂하니		閑吟聊破寂
이것이 道 아는 사람이 랄까		箇是道中人 ⁶⁰⁾

하도 답답하여 스스로 人外人, 物外境에 놓여지고 싶었으나, 쉽게 그리한 경지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는自身을 원망하고 있다. 그는 陶淵明의 詩世界에 戀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淵明의 境地에까지 이를 수 없는 스스로의 限界가 있다. 陶淵明이 만약 自然의 眞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自然 속의 詩人을 咏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作品 속에 詩人自身이 過多하게 露出되고 있음으로써 物我의 境界를 超脫하지 못하고 있다. 陶淵明은 真性情에서 發露하여 傍門邪經에 出入하지 않았으므로 自然의 眞을 얻을 수 있었으며 文字 塗澤의 非를 알았기 때문에 “不工而佳”的 경지에 到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愛 情

일찌기 愛情의 세계에서 追放된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처럼 懇切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詩集 속에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없다. 그러나 그는 金鰲新話에서 裝置한 베일 속에서 일찌기 그 어떤 詩人도 到達하지 못한 사랑의 세계를 詩로써 읊었다. 그는 어쩌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金鰲新話를 製造하였는지 모른다. 달콤한 傳奇의 雾靄氣가 아니면 이러한 사랑을 體驗할 수 없었기 때문에 剪燈新話와 같은 形式을 일부러 빌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詩篇들은 대개 長篇이므로 여기서 例證하기에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 例示는 이미 前項에서 一部를 보이었으므로 그것으로 代身하고자 한다. (“詩小說의 實現”項 參照)

6) 鄕 愁

鄉愁 그것은,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있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였겠지만, 詩에 있어서의 鄕愁 感覺도 지극히 弱하거나 鈍化되어 있다. 집을 떠나면 금방 슬퍼지는 것이 人間이기 때문에, 鄕愁에 찬 詩가 나오는 것이 自然스런 일 같지만, 梅月堂은一生을 流浪으로 보내며 凄楚한 自嘆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歸鄉을 그린 詩는 흔하게 읊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는 그는 일찍부터 歸鄉과 같은 것은 抛棄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가 오래 동안 몸 두고 있었던 金鰲山이 오히려 故山이 되고 있다. 그의 氣盡한 鄕愁 感覺의 場을 다음 詩作에서 보기로 한다.

60) 卷一「閑極」

시울 땅 떠나온 지 몇해 이미 지나니 고향에 가셨은 꿈 전과 다름 없구나 금오산에 구름 걷히면 첨첩한 산뿐이고 고래 놀던 동해 바다 一葉片舟 떠 있으리 보고픈 梅花는 눈 속에 아련하고 파초에 비 듣는 소리 창 앞에선 못듣겠네 봄이 오면 죽순은 해마다 차랄 테니 반드시 英靈 있으면 나 돌아오기 기다리리	捷逃王畿己有年 故山歸夢正依然 雲收鶴背千重岫 風定鯨波一葉船 長有梅心懸眼底 可堪蕉雨滴怨前 春來箇蕨年年長 應有英靈待我旋 ⁶¹⁾
---	---

그가 태어난 서울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그기 돌아가고 싶은 故山은 金鰲山이 있던 모양이다. 梅月堂(堂號) 앞에 피어 있는 梅花가 그립고 東海 비단에 떠 있는 一葉片舟가 눈에 선했던 것 같다. 이러한 金鰲山室에 대한 미련은 다음 詩에서도 事實로 確認된다.

고향의 잔나비 · 학 생각은 여전하기만 하고 밝은 꿈에 놀리 갠지 벌써 수년 되었네 금오산에 해 미치면 산봉우리 그림 같고 연기가 東海에 걷히면 파도는 하늘에 넘치겠지 스스로 병이 있어 갈 수 없을 뿐이지 세상 생각에 다시 끌려 그런 것은 아니라오 세모엔 갈까했더니 또 못돌아가고 무른 구름 가을 나무 月城이 그립네	故山猿鶴思依然 清夢頻驚已數年 日射熬頭峯展畫 煙開鯨背浪滔天 自緣身病不能去 無復世情相累牽 歲暮欲歸歸未得 碧雲秋樹月城邊 ⁶²⁾
---	---

여기서도 ‘故鄉’은 金鰲山이 있는 月城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가 태어난 서울에 대한 鄉愁 感覺은 完全히 去勢되어 있고 30代의 青年時節을 보낸 慶州 金鰲山에 대한 미련이 濃度 짙게 나타나고 있다.

7) 술에의 陶醉

詩人們은 흔히 詩人과 세상의 위치를 뒤바꾸어서 자신의 個人的인 煩惱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象徵으로서 醉를 追求하곤 한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즐겨 읽은 그는⁶³⁾ 和淵明飲酒詩二十首를 쓰고 있지마는 술에 의해 陶醉되고 있는 성태를 象徵的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淵明의 飲酒詩에서와 같이, 醒醉間의 境界를 寓意的으로 深化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否定的인 現實 感覺을 去勢하지 못하고 있어, 自然을 “스스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있다. 一生을 별 일이 없이 보내고서도 정각 閑에 서 피어 오르는 真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說明의 便宜를 위하여 陶淵明의 飲酒詩와 梅月堂의 和淵明飲酒詩를 비교吟味함으로써 梅月堂이 到達한 醉鄉의 경지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61) 卷二「憶故山」

62) 卷二「懷東都」

63) 和陶淵明飲酒詩를 비롯하여 和淵明酬柴桑, 和淵明郭主簿 등 직접 淵明詩에 和韻한 것 以外에도 詩作의 到處에 流露되는 淵明에의 關心은 이루다 摘記할 수가 없다

가을 바람 왜 그리 차기만 한가	秋風何淒淒
무서리 국화 꽃에 담뿍 내렸네	微霜粘菊英
그 누가 국화 꽃을 주으려 하여	何人掇其英
세상 인정 훌쩍 걷어 떠나가려나	翛然離世情
외로운 새 스스로 돌아올 줄 알고	獨鳥自知還
지는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졌네	落日西山傾
봉황새는 날아서 내려오지 않고	鳳鳥翔不下
까마귀만 저물녘에 다시 놀라네	昏鴉捷復驚
잠자코 또 잠자히 그쳐 버리니	嘿嘿且止止
니는 벌써 평생이 넉넉하구나	我已足平生 ⁶⁴⁾

醉鄉 感覺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寓意만 露出시킨 결과가 되고 있어, 詩的 情感을 減却하고 있다. 몸은 山林間에 던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日常的인 沒頭에서 빠져 나와 쉽게 술에 의해 陶醉되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端明의 飲酒詩는 다음과 같다.

秋菊有佳色	가을 국화 色香이 하그리 좋아
裛露掇其英	이슬 깃은 꽃잎을 주워 모운다
况此忘憂物	하물며 忘憂物 이 술이란 것은
遠我遺世情	세상일 잊고픈 마음 더더욱 깊게 하네
一觴雖獨進	한잔 술 호율로 들이키지만
杯盡壺自傾	술이 다하니 단지가 절로 기운다
日入羣動息	해가 저 원 천지 숨을 죽이니
歸鳥趨林鳴	나는 새도 돌아와 숲에서 운다
嘯傲東軒下	동쪽 처마 끝에 거리낌없는 몸이 되니
聊復得此生	다시금 사는 의미 깨닫게 되네

“秋菊有佳色”에서 볼 수 있는 譯詩의 妙는 우리나라 詩人們이 원래 摠得하기 어려운 것 이기도 하겠거니와, 終篇의 “嘯傲東軒下 聊復得此生”에서 보여준 高遠한 寓意는, 眞性情의 流出이 없이는 到達하기 어려운 境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4. 批評的 接近

宋 倪思의 밀을 빌리면, 文章은 體製가 먼저고 精工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文章以體製爲先 精工次之)⁶⁵⁾ 明, 陳洪謨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文章英先於辯體 體正而後 意以經之 氣以貫之 辭以飾之 體者文之幹也 意者文之帥也 氣者文之翼也
詞者文之華也⁶⁶⁾

64) 卷八, 「和端明飲酒詩」其七

65) 徐師曾, 文體明辯 卷首

66) 同上

그러나 이러한 文章의 綱領에도 不拘하고 梅月堂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事情을 털리 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文章은 詩의 概念도 包含되는 것임)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위하여 詩를 하는 浪費를 일삼게 된 그에게 있어서는 體製와 같은 것은 처음 서부터 먼 거리에 있었는지 모른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즐겨 읽은 그는 淵明의 경우처럼 己往의 體製에 대하여 애써 拒否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體製에 대한 그의 關心이 疎遠했던 것만은 事實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의 詩篇 속에 나타나고 있는 自身의 말을 들어 보면 사실로 드러난다.

但看其妙處

我願得其妙

莫問有聲聯⁶⁷⁾

不勞空嘯休⁶⁸⁾

가 그것이다. 詩는 그 妙處만 보면 되는 것이며 聲聯과 같은 것은 論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發言은, 梅月堂의 詩世界에 대한 後代의 批評과도 대체로 그 方向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後代人の 視角을 檢證하는 것은 곧 梅月堂의 詩world에接近하는 중요로운 作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차례로 보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李軒는 그의 梅月堂集序에서

그 詩의 된 것이 浩蕩해서, 밀물인듯 쓸물인듯 연기인듯 구름인듯 바람을 물고 비를 호령하며 노하여 꾸짖고 기뻐 웃는 것이 모두 다 詩가 되었지만, 聲律에 拘束되지 않으면서도 法則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修飾에 애쓰지 아니하되 큰 보석처럼 더욱 아름다왔다…… ·①

(其爲詩浩蕩 朝夕烟雲 騞風晝雨 怒噴喜笑 皆成句語 不規於聲律 而典章不棄 不刺劄於詞華 而大璞忿麗)

고 하였으며, 같은 梅月堂集序에서 李山海는

그가 詩를 짓는데에는 自己 性情에 根本하여 舊고 나타냈으므로 애써서 꾸미지 아니하였어도 자연히 詩가 되어 긴 노래든가 짧은 詩가 나을수록 窮拙하지 아니하였다 … ·②

(其爲詩也 本諸性情 形於吟咏 故不事鍛鍊繚繪 而自然成章 長篇短什 慾出而愈不窘)

고 하였다. 그리고 梅月堂의 傳記를 쓴 尹春年과 李珥도 각각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먼저 尹春年的 것을 보면,

선생이 詩學에 대하여 餘事라고 했지만, 그러나 格이 높고 생각이 오묘하다 (先生雖於詩學爲餘事然格高思妙) ·③

라 하였고 李珥는

聲律과 格調에 있어서는 심히 생각지 않았으나 그 奇警한 것은 생각이 높고 면네까지 이르고 있어

67) 前出 卷四「學詩」

68) 前出 卷一「戲甚走題」

보통 사람의 생각보다는 뛰어나고 있으니, 雕篆하는 者가 가히 발돋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④

(聲律格調 不甚經意 而其警者 則思致高遠 迦出常情 非雕篆者所可跂望)

라 하였다. 이 밖에도 南龍翼이 壺谷詩話에서

金梅月之神邈.....⑤

이라고 한 것이 있고 任環이 그의 玄湖瑣談에서

金時習 銀樹霜披 珠臺月得 ··· ⑥

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批評的 鋒角에서 梅月堂의 詩를 論한 이는 許筠이다. 그는 그의 惺叟詩話에서

金時習은 높은 절개가 우뚝하여 짹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詩文도 모두 超邁하여 장난삼아 힘들이지 아니하고 하였으므로 그 끝에 가서는 매양 난잡하고俚俗의 말이 많다. ·⑦

(金悅卿高節卓爾 不可尚已 其詩文 俱超邁 以其遊戲 不用意得之 故強弩之末 每雜蔓語張打油 可厭也)

라 하여 그 正鵠을 찌른 느낌이다.

이상을 綜合해 보면, ①②③④⑦에서 共通의 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첫째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힘들이지 않고서도 天成으로 詩作이 可能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그 생각이 높고 멀어 超邁 奥妙한데가 있았다는 것이다. ⑤⑥의 批評도 같은 方向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니 이 두 方向을 다시 정리해 보면 前者は 詩作에 있어서 初步的인 作詩修業의 論證에서 그치고 있을뿐 本格의in 作品論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陶淵明이 “不工而佳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다른 次元에 있다. “不工” 즉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不用意” 즉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은 서로 그 세계를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後者の 경우는 흔히 東洋의 詩學에서追求하던 理想論으로서, 매개의 경우 이는 詩人自身의 人格과 直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본 諸家の 批評感覺은 本格의in 作品論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詩作 評價의 普遍的인 基準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印像批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詩作에 있어서 視覺的 聽覺的 effect와 같은 것이考慮되지 않은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詩作의 全篇을 가늠하는 體製와 같은 것은 말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叙上한 批評의 두 方向에 따라 그 作品을 檢證해 보면 내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例示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녁 되자 산빛이 하도 좋아서
옛 역 다락에 올라 보았네
말이 우니 사람은 멀리로 가고

向晚山光好
登臨古驛樓
馬嘶人去遠

물결 침는 노젓는 소리 부드럽구나	波響棹聲柔
유공(夷公)의 흥치도 얕지 않은데	不淺庾公興
왕찬(王粲)의 시름도 가지지 않네	堪消王粲憂
내일 아침 관문 밖에 나갈 때에는	明朝度闕外
구름 가에 여려 봉우리 백백 하리라	雲際衆峰稠 ⁶⁹⁾

全篇을 통하여 雕琢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흐름이 自在하여 窮拙하지 않는다. 終篇에서 보여준 油然한 意境은 雕篆을 일삼는 者가 감히 발돋음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국에 처음으로 눈이 날리니	貊國初飛雪
춘성의 나무 잎이 들행해졌네	春城木葉疏
가을 깊어 마을에는 술이 있는데	秋深村有酒
손 노릇 오래 하니 고기 맛을 못보겠네	客久食無魚
산이 멀매 하늘은 들에 드리우고	山遠天垂野
강이 머니 대지는 허공에 불었네	江遙地接虛
의로운 기리기 지는 해 밖으로 가니	孤鴻落日外
나그네의 말 밤굽 머뭇거린다	征馬政躊躇 ⁷⁰⁾

廣遠한 경지를 自覺한 詩篇이다. 超邁한 그의 詩作이 모처럼 이룩한 成果라고 하겠다. 이상은 梅月堂의 詩世界를 檢證하는 노력으로서는 그 一齣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그 批評的接近이 처음부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指摘한 바 있다. 그는 마음을 쓰지 않고 詩를 하기 때문에 體製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틀려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重視해야 할 意·氣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사실상 말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外景만 描寫하고 情이 없는 詩가 많은가 하면 모처럼 立意가 이루어졌다가도 이것이 違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作品 속에 詩人 자신이 無節制하게 露出되거나 現實的批評感覺이 過多하게 流露되는 이것들이 그의 詩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例實은 이미 앞에서 試圖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다.

5. 結　　言

지금까지의 梅月堂에 대한 研究가, 傳奇集 金鰲新話에 集中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나 외 이리한 金鰲新話에 대한 執着은 결국 傳奇集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 때문에 그 壁에

69) 卷十三「登樓」

70) 卷十三「途中」

부딛힐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脆弱點을 克服하기 위하여企圖된 思想 論證는, 事實과虛構를 같은 次元에서 照鑑하는 施行錯誤를 거듭함으로써 文學理論의 不在라는 自責을 免할 수 있게 되었다. 本稿의 企圖는 바로 이것에 대한 留意에서 출발한 것이다. 梅月堂集에 버려져 있는 詩篇을 收拾하여 梅月堂의 研究에 새로운 方向을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梅月堂이 이룩한 詩的 表現을 통하여,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쓰게 된 詩的 動機를 보았으며, 詩를 통하여自己 實現을 일삼고 있는 詩 속의 梅月堂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山水에 몸을 맡기고一生을 放浪으로 始終하면서, 詩를 통하여 그의 精神的 價值를 實現하려 한 梅月堂이 었지만, 現實을 拒否하는 傲兀한 그의 批評 感覺 때문에 自然과 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維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一部가 되곤 하였으므로 거기에는 悲劇的인 感情이 짓들기 일쑤였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의 詩는 自嘆을 일삼는限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漢詩의 詩語 가운데서 가장 常識的인 表現으로 나타나고 있는 思惟와 感覺樣式을, 그의 詩에서 主題的 素材가 되고 있는 自然, 時間, 歷史, 閑, 鄉愁 등을 통해서 보면, 日常的인 没頭에서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는 그의 現實感覺이 언제나 醒醒하게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詩로써 實現한 傳奇集 金鯨新話를 통하여, 그는 그에게서 가장 缺乏되고 있었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傳奇라는 틀을 밀리 일찌기 우리나라 詩人中에서 그 類例를 찾이 볼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였다. 南炎浮洲志를 除外한 4篇은 艷情詩로써 채워져 있는 것이다. 儒家의 敎養에서 分明히 그 境界를 犯越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梅月堂의 또 다른 모습을 읽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처음으로企圖해 본 梅月堂의 詩에 대한 批評的 接近은 그의 詩에 内在하고 있는 基本的인 문제의 限界 때문에 그 成果는 滿足한 것이 되지 못했다. 그는 힘들여 詩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漢詩에 있어 가장 重視해야 할 體製 문제를 外面하고 있으며, 詩人自身이 作品속에 過多하게 露出됨으로써 그의 意境이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要因으로 指摘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學界에서 企圖한 漢詩研究는 그大部分이 思想 論議로 一貫해 왔을 뿐 漢詩 自體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本稿의 試圖는 이런것을 追求하는데 보다 積極的인 意味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學界가 克服해야 할 主要한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Kim Si-sǔp's Poetic World

Byong-su Min

Kim Si-sǔp is the author of *Kumo Sinhwa*, a collection of fictional works, which is known to b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Most of scholarly researches have so far been concentrated on this work, and the critics have paid specific attention to his ideas manifested in these collected tales.

This paper was written on the assumption that any research on Kim Si-sǔp can't be satisfactory if the researcher ignores the significance of the two thousand two hundred poems collected in his complete work.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Kim Si-sǔp formed a unique world of his own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the present writer attempts to open a new field in the Kim Si-sǔp studies.

A born poet, Kim Si-sǔp made his name known to the world at the juvenile stage of his literary career. When he realized that his political ambition had been ruthlessly frustrated after the *coup d'état* by King Sejo, he turned his back to the world to seek pleasure in wandering and poetic composition. As he had nothing to do but writing poems, poetry meant everything to him. To him in a certain sense the act of writing poems was in itself poetry. Poetry was the only channel available to him through which he could speak about himself and the world. In other words, poetry was the only means by which he could realize himself.

The paper discusses Kim Si-sǔp's life and work through an elaborate study of his poems, with specific references to his peculiar mode of thinking and feeling in the poetic diction and to such recurring themes as nature, time, history, leisure, and nostalgia. The present writer also made a new approach to *Kumo Sinhwa* by regarding these collected tales as a work of art through which Kim Si-sǔp attempted to realize his idea of love.